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 풍수해 대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 실시

✎ 이운안 기자 | ⓒ 승인 2026.05.13 16:41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 풍수해 대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 실시.(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

(연천=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는 13일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소재 백학저수지에서 여름철 극한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풍수해 비상대처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연천군 농업정책과 관계자와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저수지 붕괴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재난 발생에 따른 위기 대응 요령 숙지와 함께 상황 전파, 초동 보고, 응급 복구, 주민 대피 등의 절차를 실전처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참가자들은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재난 대응 능력과 비상대책 의식을 높여 실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선제적 재난 대응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급경사지와 하천변, 저수지, 지하차도 등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도 병행한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붕괴·고립 위험이 큰 지역을 사전에 확인해 보완 조치를 강화하고, 산사태 취약지역도 추가 발굴해 관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신혜 지사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직원들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 풍수해 대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 실시.(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



이운안 기자 hy8269631@hanmail.net

